

# 국경일 태극기 게양 문화 사라져간다

**현장르포 광복절 국기게양 실종**

**박근혜 옹호세력 집회 이용된 후 감소 현상  
이미지 제고·국기 게양 운동 등 대책 시급**

“박근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태극기를 집회도구로 사용한 뒤부터 국경일에도 게양하기가 영 꺼리직 하구만”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광주전남 아파트밀집지역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십가구가 몰려 있는 아파트 1개동에 한두 가구만 태극기를 내걸었고 나머지 가정들은 국경일에 무관심한 반응이었다.

이날 낮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아파트

단지, 20층 높이의 아파트에는 2세대만 태극기를 내걸었고 옆 동은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광복절에서 총 34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서는 9곳만 태극기를 게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소장 박모씨(63)는 “2~3년전만해도 국경일이면 태극기를 내다 거는 가정들이 꽤 많았는데 박근혜 탄핵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태극기를 집회도구로 이용한 뒤부터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내거는 가정들이 크게 줄었

다”며 “국기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진 탓인지 시간이 지나도 태극기를 게양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광산구 아파트 밀집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해는 남북평화무드 조성 등으로 광복절에 대한 의미가 그 어느해 보다 크게 다가왔지만 태극기를 내걸고 환영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수백가구가 밀집한 아파트단지에서 유일하게 태극기를 게양한 선모씨(38)는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태극기 게양은 당연한 일인데 국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져 잠시 망설였다”며 “국가 차원에서 국기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기달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구 운암동 박화영씨(22·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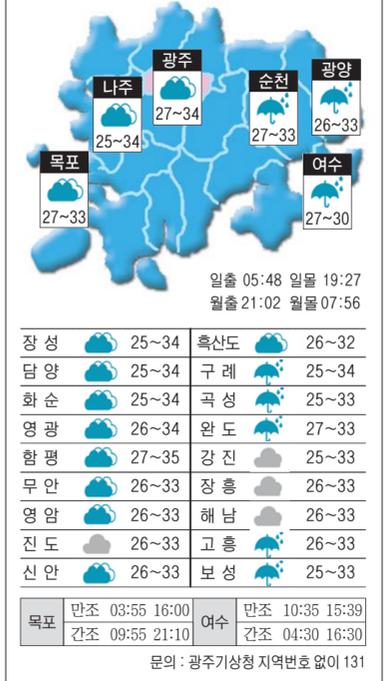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아파트에서 340세대 중 홀로 게양된 태극기가 광복절 태극기 게양문화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다시 주권을 되찾은 매우 기쁜 날인데 태극기를 내건 집이 거의 없다”며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

는 만큼 법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는 집회에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주·송수영 수습기자

### 오늘의 날씨



## 미성년자와 성매매 미끼 강도짓 10대들

**법원, 주범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제안한 뒤 이에 응한 남성을 협박·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 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 군은 지난 5월14일 광주 한 지역 C씨(23)의 집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벌금 3,000만원, 징역 2년이다’며 C씨의 지갑에

서 현금 5만3,000원을 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또다른 공범(여)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공범이 남성과 만나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구실삼아 해당 남성을 협박,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차례 범죄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당한 소득활동에의 노력이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8·15 광복절 행사**

15일 오후 광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8·15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주민과 학생들이 전시실에서 백범 김구선생과 광주·전남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전남 5~60mm ‘비’ 기온 2~3도 가랑 떨어질 듯

광복절인 15일 전남 동부권과 남해안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일시적으로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과 제15호 태풍 리피(Leepi)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내륙과 남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다.

16일에도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룸비아(Rumbia)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권에 비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동부내륙 5~40mm, 남해안 20~60mm다.

또 거문도·초도와 흑산도·홍도에는 강풍 예보특보가, 남해서부동쪽만바다와 서해남부만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다.

16일 예상 낮 최고 기온은 32~35도로 이날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목포·신안(흑산면 제외)·진도 등 14개 시군에 내리진 폭염경보를 주의보로 대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유지된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광산 39.3도, 곡성 옥과 38.9도, 광양을 38.3도, 장성 상무대 38.7도, 함평 38.6도, 순천 37.8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부터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만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 옛 전남도청 복원 속도 낸다

**‘조선대 산학협력단’ 기본계획 등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기

본계획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30일 제안서를 냈으며, 이날 기술평가위원회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다.

아시아문화원은 공정성을 확보하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평가를 진행했다.

옛 전남도청은 201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됐지만, 원형복원 문제로 정식 개관을 못하고 있다.

앞서,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원 중 옛 도청을 리모델

링해 만든 민주평화교류원은 원형 훼손 문제를 놓고 5월 단체와 갈등을 겪어왔다.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용역이 두 차례 유찰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됐다. 선정 기관과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일정 등을 협의, 이달 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해 조속히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최저판 권하게 스테레오 공기청정기 mini air DK

www.e-dk.co.kr

**제습기 이젠 사계절 필수품입니다.**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상담) 1544-1154